

한국주재 영국의교관, 스콧(J. Scott)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만연사본 『眞言集』*

이상현(부산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스콧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만연사
본 『진언집』 |
| 2. <i>The Korean Repository</i> 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전거문헌 | 4. 맺음말 |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구한말 한국주재 영국의교관, 제임스 스콧(James Scott, 1850-1920; 이하 스콧으로 약칭)의 ‘훈민정음 기원론’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스콧은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 1841~1911)과 함께 1884년에 來韓한 이후, 1892년까지 인천에서 부영사로 근무했던 영국의 외교관이다. 그는 또한 한국어문법서(1887(초판), 1893(개정판))와 영한사전(1891)을 발간한 외국인으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¹⁾ 물론 그가 출판한 어학서는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외국인이 만든 초창기 한국어학서의 부족한 실상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는 스콧의 문법서에 관해, 『韓語文典』의 “가장 쉬운 부분을 그대로 영역한 것에 불과하며, 부록에 실린 많은 문장들은 아무런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어” 별로 쓸 모 없는 저술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언더우드의 비판은 현재의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엄정한 평가였다. 스콧의 문법서 자체는 파리의방전교회의 『韓語文典』을 뛰어넘는 수준의 저술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이다.²⁾ 하지만 스콧의 저술은 당시 영미권 외국인들이 영어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선교사들에게 그의 저술이 지닌 의미는 그만큼 각별한 것이었다.

1890년경에 출판된 스콧의 영한사전에 관한 언더우드의 논평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물론 언더우드는 ‘한글음역(transliteration)’의 잘못된 사례와 한국어(한국민족)에 대한 서술 속에는 정정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글 정서법, 한글 음역 방식 그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한국어-영어 사이 대형사전이 부재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스콧이 행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결코 평가절하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그는 스콧이 10,000여 개의 영어 어휘에 대한 한국어 등가어(equivalents)를 마련한 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영한사전에 수록된 엄청난 노고의 산물, 스콧의 「서설」(Introduction)

연구임(NRF-2007-361-AM0059)

- 1) J. Scott, 『언문말칙(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87 ; J.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J. Scott,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Second Edition),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3.
- 2) H. G. Underwood, 이만열, 우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1, 연세대 출판부, 2005, 114면 ; 이은령, 『『한어문전Grammaire Coreane』과 19세기 말문법서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78, 한국프랑스학회, 2012, 433~460면 ; 윤애선, 『개화기 한국어 문법 연구사의 고리 맞추기: Grammaire Coreane(육필본) 분석을 통하여』, 『코기토』 73,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3, 120~130면.

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언더우드가 보기에 이 「서설」 속에는 한글정서법과 한국어의 음역(로마자화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과 고민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³⁾

이 점은 후일 한국학자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였다. 스콧을 한국어학사 속에 기억하게 만든 가장 주요한 계기 역시 그의 「서설」이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확(安廓, 1886~1946)은 「朝鮮語의 價値」(『學之光』 4, 1915. 2)에서 스콧을 한국어사전, 문법서의 편찬자가 아니라, 한국어에 능숙한 영국의 외교관이자 한국어에 관한 풍성한 연구논저를 내놓은 인물로 서술했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의 『朝鮮語學史』(1940)를 펼쳐 보면, 안확의 이러한 평가를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다.⁴⁾ 오구라는 스콧의 「서설」 2편을 한국어의 자음, 모음, 이중모음 등의 문제, 한국어의 품사, 한국어의 계통, 한국어와 중국고어 사이 발음상의 관계, 한국어의 음운현상, '한글의 기원문제', '이두' 등을 거론한 중요한 논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오히려 스콧의 「서설」을 그의 사전과 문법서보다 더욱더 비중 있게 서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콧의 「서설」은 이처럼 한국어에 관한 그의 연구성과가 집약되어 있는 논고이며, 동시에 1887년 발행한 그의 초판 문법서와는 달라진 1890년경 발행한 저술들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1890년경 발행한 저술에서야 우리는 스콧의 「서문」(Preface) 이외에도 「서설」(Introduction)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H. G. Underwood, "Review. English K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K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by James Scott, M. a. H.B.M's, Consular Service, K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2, pp. 63~64 ; 이하 스콧의 영한사전 「서문」과 「서설」은 황호덕, 이상현의 번역문(『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2, 박문사, 2012, 51~85면)을 함께 참조하도록 한다.

4) 안확,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4, 1915. 2; 小倉進平,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1940, 34~36면, 81면, 148면, 166~167면, 318~319면; 더불어 외국인의 한글연구 전반에 관해서는 서민정, 「19C말~20C초, 서양인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우리말연구』 45, 우리말학회, 2016, 16-19면과 김민수 외, 『외국인의 한글연구』, 태학사, 1997, 13-135면을 참조, 특히 영미권 자료현황에 관해서는 김민수의 앞의 책, 241-287면을 참조.

본고에서 고찰할 연구대상은 스콧의 영한사전에 수록된 「서설」(1891)과 개정문법서에 수록된 「서설」(1893)이며, 이 논저 2편에 담겨있는 그의 ‘훈민정음 기원론’이다. 그렇지만 두 「서설」에서 초점이 다른 점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한국의 자음, 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문법을 논한 후 스콧이 결국 최종적으로 답하고자 한 질문은 “한국인과 한국어가 어떠한 어족과 민족에 속하는가?”였다. 즉, ‘한국어의 계통문제’가 영한사전에 수록된 「서설」의 중요한 초점이었다. 반면 후자의 초점은 목차에 수록된 「서설」의 부제목, ‘한글의 역사와 기원(History and origin of the Korean alphabet)’ 그 자체가 잘 말해준다. ‘한국어의 계통문제’에서 ‘한글의 기원문제’로 주제가 옮겨간 모습은 의당 외국인들의 한국어학 연구의 동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당시 외국인에게 한글의 기원문제는 한국/한국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외방전교회의 『韓語文典』은 한글을 薛聰(655~?)의 발명품으로 잘못 서술한 바 있었고, 중국 및 일본의 재외 동양학자들은 이 통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⁵⁾

당시 스콧의 「서설」은 한국개신교선교사의 논의와 함께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한글[훈민정음]의 기원 문제를 한층 더 정밀하게 고찰한 우수한 학술적 연구성과였다. 스콧의 논저가 지닌 당시 학술사적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 개신교선교사의 훈민정음 기원론들, 특히 1892년 그들의 영미정기간행물,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논저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콧의 「서설」(1893),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논저를 함께 고찰할 때, 그들의 논저가 상호유통되던 당시의 한국학 학술네트워크의 모습 또한 훈민정음의

5) 해당 문제부분은 ‘파리외방전교회, “Introducton,” 『韓語文典(*Grammaire Coréenne*)』, Yokohama: Imprimerie de C. Lévy et S. Salabelle, 1881, p. 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당시 재외 동양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비판은 에스틴을 논문(W. G. Aston, “The Önmun-When Invented?,”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3, 1895, p.1.)을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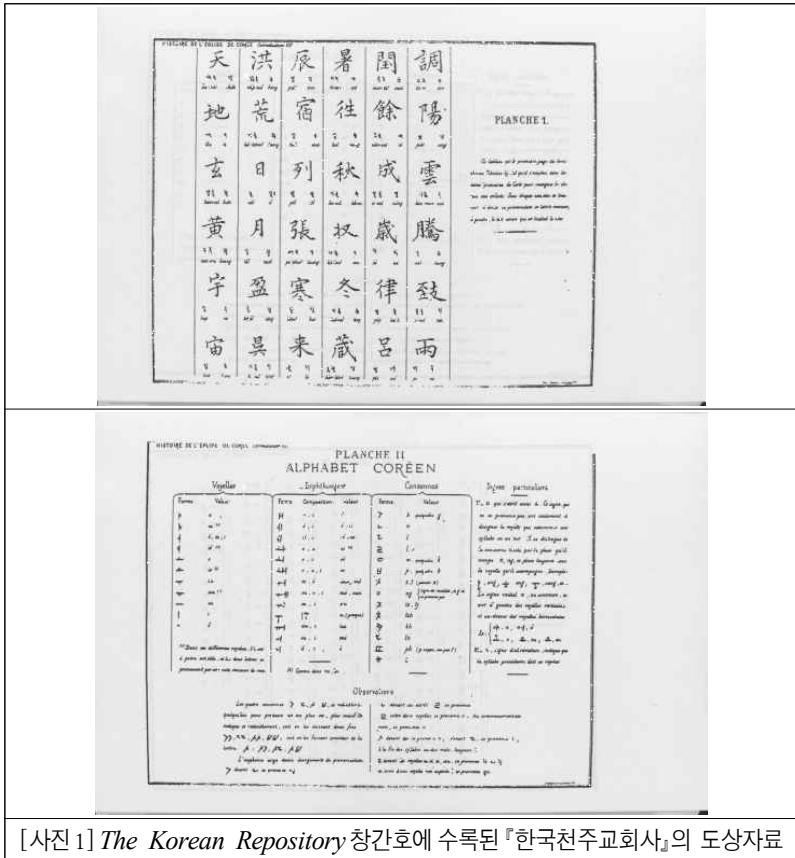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당시 그들이 입수할 수 있었던 자료적 실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The Korean Repository*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전거문헌

1)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의 '훈민정음 기원론'

The Korean Repository 창간호(1892.1)에는 한글과 관련된 도상자료 4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2종이 [사진 1]이다. 잡지의 편집자가 잘 말해주었듯이, [사진 1]의 출처는 달레(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의 『한국천주교회사』(1874)였다. 이러한 달레의 저술과 파리의방전교회의 한국어사전 및 문법서는 한국의 개신교선교사들과 유럽 동양학자[이자 외교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행업적이었다. 달레는 “도상자료 1[Planche 1]”은 한국 한자음, 한국의 말[한자훈]을 엿볼 수 있는 조선에서 초학서로 쓰이는 『千字文』이라고 말했으며, “도상자료 2[Planche 2]”는 14개의 자음, 11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한국어의 字母라고 소개했다.⁶⁾

6) 샤를르 달레, 안응렬,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上), 분도출판사, 1979, 126~138면
[C.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 V. Palmé, 1874]



[사진 1] *The Korean Repository* 창간호에 수록된 『한국천주교회사』의 도상자료

“도상자료 2”는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崔世珍(1468~1542) 『訓蒙字會』(1527)의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를 연상시켜준다. 이는 한국주재 외교관 및 선교사들이 접촉했던 한글학습과 관련된 자료의 현황과 향후 그들의 논의가 지향하는 바를 예견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살펴보게 될 *The Korean Repository*, 스코트의 ‘훈민정음 기원론’은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훈민정음』 「例義篇」과 鄭麟趾(1396~1478)의 서문¹⁾을 다른 문헌 속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며, 어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훈민정

음 창제당시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음운학적 지식'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Korean Repository 창간호에 수록된 첫 번째 논저 역시 이 도상자료와 잘 어울리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글이었다.⁷⁾ 이 논문의 저자는 개신교선교사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로, 그는 한국의 개신교선교사 중에서 이 주제의 선편을 잡았으며 향후에도 이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헐버트는 언어와 문자는 서로 다른 위상을 지니기에 다른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리고 이에 맞춰 그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의 기원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탐구에는 그의 한국에 대한 역사지식, 한국인과의 교류 및 한국체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1892년과 1896년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李益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의 논의와 공유되는 한국 개신교선교사 집단이 지닌 중요한 특징이었다. 한국을 체험하지 못한 재외의 동양학자와 이들의 관점은 분명히 분리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세 사람의 논저들 가운데, 달레, 파리의외방전교회, 자일즈(Herbert Allen Giles, 1845~1935)와 같은 재외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개신교 선교사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게일이었다. 게일은 설총을 승려이자 한글의 창제자로 오인한 파리의외방전교회, 자일즈[또한 파커(Edward Harper Parker, 1849~1926)]의 오류를 지적했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 집단은 한글이 세종 시대의 산물이며, 설총은 한글과 구분되는 이두와 관련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 하지만 게일의 논의는 훈민정음의 기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설총, 成三問(1418~1456)을 비롯한 사육신 등과 같은 관련인물을 소개하는 차원에서의 논의였을 뿐이다.

7) H.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 1892[이하 더불어 해당역문은 H. B. Hulbert, 김동진 역,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참좋은친구, 2016을 참조].

8) J. S. Gale, "The Inventor of the Én-moun,"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pp. 365~367.

반면 헐버트의 글은 훈민정음의 기원을 논하는 본격적인 논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문자기원의 외적인 단서 즉, 한글 창제 당시 조선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주목하며 한글에 영향을 주었을 문자 체계를 선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족이 몽골을 비롯한 다른 동북아시아의 문자를 접했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의 외국어교재를 그가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 속에서 두 가지 한글 기원의 가능성을 전제했다. 첫째, 한글이 완전히 독창적인 발명품일 가능성이었으며 둘째, 불교사찰에 존재하던 티베트 문헌의 존재를 근거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었다. 그리고 문자기원의 내적인 단서라는 차원에서 한글과 만주어, 산스크리어, 티베트어 문자의 자형을 비교검토했다. 중국적으로 한글의 초성 글자(ㄱ, ㅋ, ㆁ, ㄷ, ㅌ, ㅍ, ㅊ)와 티베트어 문자 사이 자형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글이 티베트어 문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다.⁹⁾

*The Korean Repository*에는 헐버트의 논의를 반박하며 또 다른 한글의 기원설을 말한 중요한 인물이 존재한다. 그는 이익습이라는 필명을 쓴 필자인데 그의 글에서 제기한 입장과 관점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를 한국인이라고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다. 헐버트 - 이익습의 논의가 합의를 이룰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해서 다층적인 분석이 물론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지적한다면 두 사람 사이 서로 다른 문자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일 두 사람의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 헐버트는 이익습이 ‘문자 진화의 법칙(the laws of the evolution of alphabets)’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¹⁰⁾ 헐버트는 영문자의 역사라는 바탕에서, 無에서 有가 창조되는 문자의 독창성 자체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자형의 완전한 일치라는 기준에서 티베트어 문자 기원설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으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폄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점점 더 단순한 형태로 진화하는 문자의

9) H. B. Hulbert, op. cit., pp.6~10, pp.72~75[김동진 역, 앞의 책, 115~131면].

10) Ibid., p. 233[위의 책, 180면].

진화법칙에 있어 한글은 형태상 그 진화의 정점에 놓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체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습의 반론은 후일 헐버트가 스스로 자인했듯이, 그의 가설이 “명백한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지” 못한 한계점 때문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헐버트는 서양인의 타르타르어, 만주어(Mandchou),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Thibetan)에 관한 선행논저를 바탕으로 한글 낱글자의 자형을 단순히 비교했을 뿐이다.[사진 2] 더불어 헐버트가 한국인에게 구두 전승되는 한글창제의 일화 즉, 한글의 자형이 한국의 문창살에서 기원했음을 추가적으로 언급한 모습은 그가 접촉했던 자료적인 여건을 잘 드러내 준다.[사진 3]¹¹⁾

<p>[사진 2] 헐버트가 제시한 대조표</p>	<p>[사진 3] 헐버트의 논의를 예증해 주기 위한 한국의 문창살 그림</p>

사실 이익습의 논의는 서구적 언어학의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조선 지식인의 언어학적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1) Ibid., pp. 74~75.[김동진 역, 앞의 책, 128~131면].

그는 한글이 창제된 세종의 시대는 崇儒抑佛을 국시로 하는 조선이라는 전제에서, 『周易』을 비롯한 다른 유교 정전[중국 고전]의 원리가 한글 창제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의 논의는 “牙舌脣齒喉”를 서구적인 음운론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번역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체계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한 성리학적인 원리와 사유를 말하고자 했다. 즉, 그는 한글의 개별 글자들이 중국음운학의 원리[伏羲의 八卦에 따른 五音의 구성물]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 자형이 ‘발음기관’의 모양에 의거한 것이란 사실을 주장했다.¹²⁾ 하지만 당시로서는 지극히 선구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익습의 논의 역시도 헐버트와 마찬가지로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글을 쓴 이유는 헐버트의 논의에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지만, 어디까지나 그 계기는 헐버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논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단지 “선조(fathers)로부터 배운 것”이자 또한 조선의 지식층이 공유한 통념에 의거하여 논증한다고 말했을 뿐이다.¹³⁾

2)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의 훈민정음 관련 문헌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 수록 세 편의 논저는 모두 자료적 실증성의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논의에서 보이는 오류를 정리해 보면 첫째, 헐버트와 이익습 두 사람 모두 한글의 창제를 1445년으로 보았으며, 게일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둘째, 게일은 성삼문을 한글의 창제자로 보았으며, 헐버트는 동일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창제자를 분명히 거론하지는

12) Yi Ik Seup, “The Alphabet(Panchul),” *The Korean Repository* I, 1892.10, pp.294~299.

13) 이익습과 헐버트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향후 두 사람의 지면논쟁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이상현, 빈첸자 두르소, 「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李益習, Yi Ik-seup)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을 참조.

않았다. 다만 이익습은 한글창제의 주체를 세종으로 인식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다면 세 사람이 참조했던 자료는 무엇이었을까?

비록 그들은 자신이 참조한 자료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The Korean Repository*에는 이를 추정해볼만한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 『燃藜室記述』과 『靑野謾輯』 소재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관련기사'가 원문과 함께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The Korean Repository*의 편집자들은 원본자료가 제시한 일차자료 즉, 재인용의 출처를 함께 밝혔다. 그 자료는 『慵齋叢話』, 『東閣雜記』에 수록된 '훈민정음 창제 관련기사' 그리고 '申叔舟(1417~1475)의 행장이었다.¹⁴⁾ 이 자료들의 공통점은 조선의 공식적인 관찬역사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야사를 집성한 문헌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자료들에는 한글의 “字體는 古篆과 梵字를 모방하여 만들었다[其字體倣古篆梵字]”¹⁵⁾ 라는 진술이 남겨져 있기에, 이는 훈민정음의 기원을 논할 수 있는 충분한 단초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축자적인 번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다음과 같은 『연려실기술』 소재 기록에 대한 번역부분을 예로 들어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he therefore) invented the twenty eight son(子) and mother(母) characters and called them the common style(諺文). He established an office(設廳), within the palace enclosure and appointed Sin Suk Chu(申叔舟), Syeng Sam Moun(成三問), Chye Hang(崔恒) and others as elaborators of what was called *Teaching the People True Sound*(訓民正音).

14) “Notes on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pp.231~233.

15) 해당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조선광문회에서 펴낸 판본(『燃藜室記述』1, 朝鮮廣文會, 1912, 152면[『燃藜室記述』卷之二, 『世宗朝古事本末(纂述制作)』]에서 발췌했으며,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DB’에서 가져온 것이다. 물론 그들이 참조했던 『燃藜室記述』이 어떠한 판본인지를 알 수 없기에, 개신교선교사의 번역을 엄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참조를 위해 병기해보도록 한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해당 대목을 “Their form, was like the ancient Seal(古篆) character and Palil(梵)”라고 번역했다.(Ibid., p.232) 이하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의 것임을 밝히며 *The Korean Repository* 편집자들이 주석으로 한문을 함께 제시한 경우 ()를 통해 병기하여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They first decided on the Initial and Final sounds(初終聲)……16)
 ……친히 字母 28자를 창제하여 ‘諺文’이라 이름하였으며, 궁중에 언문청
 을 설치하고, 申叔舟·成三問·崔恒 등에게 명하여 편찬시켜 『訓民正音』이
 라 이름하였다. 初終聲이 여덟 글자이니……[……御製字母二十八名曰諺
 文設廳禁中命申叔舟成三問崔恒等撰定名曰訓民正音初終聲八字……]17)

상기 개신교선교사들의 번역물은 ‘『훈민정음』의 최초의 발견’이라고 명명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의를 부여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¹⁸⁾ 원본에서의 “諺文”과 “訓民正音”이라는 두 가지의 명칭 때문에, 한글의 창제과정은 미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원본에서 말하는 『훈민정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을 지칭하는 것인지, 세종과 그가 임명한 신하들이 행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신교선교사들의 번역을 보면, 세종은 “諺文”이라는 문자를 창안한 인물이지만 해당 문자에 대한 음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인물은 세종이 임명한 인물들 즉, “『訓民正音』의 퇴고자들”인 신숙주, 성삼문, 최항 등이었다. 또한 이러한 기록물만으로는 훈민정음의 정확한 창제시기와 28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없었으며,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되는 개별 문자들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해당 문자의 제자해와 온전한 음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6) “Notes on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p.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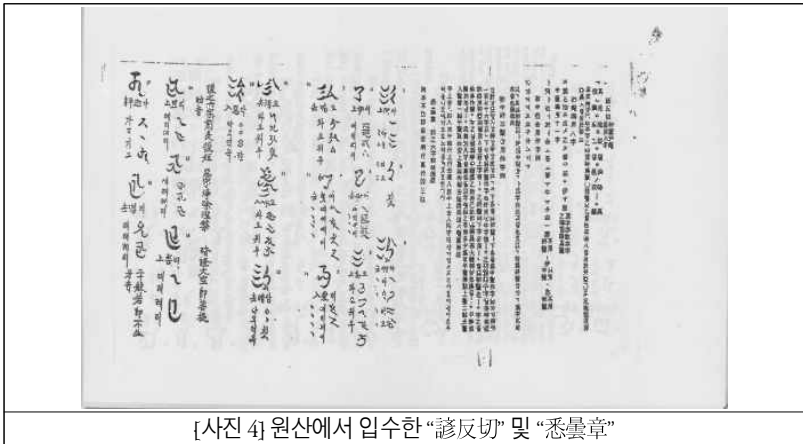
17) 『燃藜室記述』1, 朝鮮廣文會, 1912, 152면[『燃藜室記述』卷之三, 「世宗朝古事本末(纂述制作)】.

18) 개신교선교사들이 활용한 자료와 관련하여 헐버트는 후일 “필사본 야사[private histories in manuscript]”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H.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II, 1896. 6, p. 233 [김동진 역, 앞의 책, 181면]) 즉, 그 판본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기에, 원본의 “字母”는 본래의 표현일 수 있다. 이 글에서 헐버트가 번역하여 제시하는 『국조편년』의 원문(Ibid., p. 234)도 “字母”로 제시된다. 또한 “an office(設廳)”의 경우 일종의 인쇄상의 오식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즉, 그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증빙하는 역사적 사료를 접하게 될 때, 이 사료 속에 담긴 언어학적 지식을 설명해 줄 적절한 자료 역시 필요하게 되었던 셈이다. 또한 훈민정음의 기원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주목한 자료로는 『眞言集』類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사찰에 남겨진 이 한글 자료는 그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 헐버트가 '티베트어 문자 기원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국의 사찰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한글로 기록된 불경의 존재 때문이었다. 물론 헐버트는 실제 이러한 불경자료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문헌자료가 상당량 사찰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글로 음가가 풀이되는 梵語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이 이 자료들을 접촉한 과거의 역사와 사실 그 자체를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헌자료 속에는 그들이 발견한 단편적인 역사기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한국인 스스로가 만든 반절표가 존재했다. 이는 이후 헐버트가 자신의 동일한 논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던 셈이다.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에는 그들이 주목한 한국의 사찰에서 발굴한 한글 관련 자료 1편이 있다. 게일과 편집자들은 元山の 한 사찰[釋王寺]에서 입수한 반절표[사진 4]를 소개하는 기사를 이 잡지에 수록했다.¹⁹⁾

19) "Én Pan Chyel,"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pp. 369~371.; 역자와 저자는 후일 헐버트의 글을 볼 때, 게일로 추정된다.



[사진 4] 원산에서 입수한 “諺反切” 및 “悉曇章”

*The Korean Repository*의 편집자들은 [사진 4]에서 한글 개별문자의 음가와 운용을 설명한 부분(諺反切)을 번역하여 소개했다.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은 이 기사에 대해 “서적명을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으며, 번역이 정확하지도 않다”라고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 자료는 쿠랑에게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소중한 자료였다.²⁰⁾ [사진 4]는 구체적인 판본 및 서적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진언집』과 동일한 계통의 자료였던 것으로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진언집』에서 한글표기 방식을 알려주는 ‘諺本’과 梵字의 발음법을 한글로 보여주는 ‘悉曇章’과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²¹⁾ 쿠랑은 『한국서지』에서 상기 *The Korean Repository* 소개 도상자료를 불교문헌으로 분류하지 않고, 한자, 한글, 이두 등의 문자교육과 관련된 서적을 모아놓은 “教育類”에 배치했다. 이 점은 일부 『진언집』의 경우에

20) M. Courant, 이희재 역, 『한국서지: 수정번역판』, 일조각, 1994, 83~85면[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1894- 1896, 1901.].

21) 물론 개신교 선교사들이 발췌한 이 자료의 서지를 분명히 말할 수 없다. 다만 선행연구를 통해 “諺反切”이라는 제명 아래 한글 표기방식을 설명한 『진언집』과 동일한 계열의 자료로는 1784년 간행된 목판본 『秘密開刊集』이 소개된 바 있다.[이태승, 안주호, 『『秘密開刊集』의 체계와 표기에 대한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003].

서도 마찬가지인데, ‘諺本’과 ‘悉曇章’이 낙장이 되지 않은 자료는 한국에서의 외국어교육 서적을 모은 ‘梵語類’로 별도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 4]에서의 ‘언반절’과 『진언집』에 수록된 ‘언본’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 훈민정음의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진언집』의 역할과도 관련되는 데, 그 연원을 따져본다면 ‘언본’은 『훈몽자회』(1527)의 ‘언문자모’를 재수룩한 자료였기 때문이다. 쿠랑의 『한국서지』에 『훈몽자회』의 서지를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쿠랑이 직접 실물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交隣須知』에 수록된 서적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의 저술에 수록한 서지였다.²²⁾ 따라서 『진언집』에 수록된 반절표는 쿠랑뿐만 아니라 개신교선교사와 외교관 스콧에게 있어서도 『한국천주교회사』에 수록된 반절표를 대신할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반절표였다. 나아가 스콧이 수집한 『진언집』은 한국 불교지식인의 언어학적 지식이 담겨 있기에, 후일 자신의 문법서 개정판에서 한글의 역사와 연원을 검토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원천이기도 했다.

3. 스콧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만연사본 『眞言集』’

1) 스콧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전거문헌자료들

1890~1893년 사전과 문법서를 출판하고 있었던 스콧 역시 개신교선교사들과 거의 동일한 자료적 지평을 보여준다. 영한사전에 수록된 스콧의 「서설」(1891)에서 “한국 현지의 문헌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한국어, 한글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의 첫 문장은 지금까지 간략히 살핀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했던 자료적인 한계상황을 집약적으로 증언해

www.kci.go.kr

22) M. Courant, 이희재 역, 앞의 책, 83~90면, 136~137면, 664면, 846면.

주고 있기 때문이다.²³⁾ 한국인의 손에 의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법서, 한국어 어휘 사전의 존재는 논외로 할지라도, 적어도 그가 접촉한 한국의 지식인을 통해서 그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역사와 운용을 말해줄 『훈민정음』을 결코 대면할 수 없었다. 그가 보기에 한문과 대비해본다면 한국인의 한글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그만큼 부재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스콧은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그의 영한사전 「서설」에서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의 개신교선교사들이 언급하지 못한 더욱 중요한 사료 하나를 언급했다. 그것은 1895년 에스틴이 번역하여 재외에 널리 알리게 될 『國朝寶鑑』에 수록된 ‘鄭麟趾(1396~1478)의 서문’이었다. 비록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에서도 『국조보감』은 존스(George Heber Jones, 1867~1919)의 한국사 논저에서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인용되고 있었지만, 한글창제와 관련하여 이 자료가 거론된 시기는 에스틴의 논문이 나온 이후, 이듬해(1896년) 헐버트의 논고를 통해서였다.²⁴⁾

『국조보감』을 스콧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참조한 셈이었지만, 자료 그 자체의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의 한계는 사실 개신교선교사와 마찬가지로였다.²⁵⁾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정인지의 기록이라는 정통성과 그 창제시기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한다면, 『국조보감』의 훈민정음 관련 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신교선교사들이 접촉했던 문헌자료와 사실상 큰 차이점이 없었다. 물론 『훈민정음』의 창제시기와 관련한 “세종 28년(丙寅)”이라는 단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스콧은 1447년으로 그 시기를 잘못 추정했다. 당시

23) J. Scott, “Introduction,” *English-Coræan Dictionary*, Coreä: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p.viii [황호덕, 이상현 편역,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2, 박문사, 2012, 52면].

24) G. H. Jones, “The Japanese Invasion,”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2, p. 49 ; H.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II, 1892, 6, p. 233 [김동진 역, 앞의 책, 181면].

25) J. Scott, op. cit., p. vii, ix [황호덕, 이상현 편역, 앞의 책, 53면, 56면.]

서양인이 한국 역대왕조의 연표를 서기로 환산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 역시 훈민정음의 창제자를 쉽게 단정할 수 없었고, 28자라는 창제 당시 글자의 수를 알 수는 있었지만 28자에 포함되는 글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었다. 1891년 영한사전에 수록된 그의 「서설」에서 다음과 같은 훈민정음의 기원론은 이러한 한계 속에 도달한 그의 통찰이자 결론이었다.

한글의 근원이나 유래에 대해 한국 역사학자들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사실은 없으나, 전통적으로는 명나라 때 난징(南京)의 영락제 황국에 파견되었던 한국 사절단이 도입한 것(①)이라 보고 있다. 난징에서 사절단은 산스크리트어에 정통한 불교 승려와 중국학자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런 방면에 관심이 있는 골동품 수집가라면, 몇 백 년 전에 제작되었으며 산스크리어, 중국어, 한국어가 나란히 세로로 적혀 있는 불교경전 발췌문, 부적, 주문 등을 일부 오래된 사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들의 노고와 연구가 남긴 결과 중 하나(②)이다.²⁶⁾

훈민정음의 기원과 관련된 스콧의 추론(①)을 헐버트, 쿠랑은 수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의 사절단이 티베트어 및 산스크리트어 학교가 있는 난징(南京)으로 갔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⁷⁾ 아마도 이는 개신교선교사들도 접했던 역사적 기록들, 예컨대 요동에 유배된 明의 한림학사 黃玢을 성삼문, 신숙주 등이 만났던 기록에 대한 스콧의 해석이거나 그가 들었던 당시 유통되던 다소 訛傳된 구술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혹 어쩌면 쿠랑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단지 한글과 범어 문자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자 한 스콧의 막연한 추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 전파된 불교문명과, 산스크리트어로부터 유래된 범어의 문제는 헐버트, 스콧 두 사람 사이 '훈민정음 기원론'의 공통된 화두였다. 쿠랑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결코

26) Ibid., p. viii[위의 책, 55면]: 인용 및 밑줄, 강조의 인용자의 것.

27) H.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1, p. 7[김동진 역, 앞의 책, 121면]: M. Courant, 이희재 역, 앞의 책, 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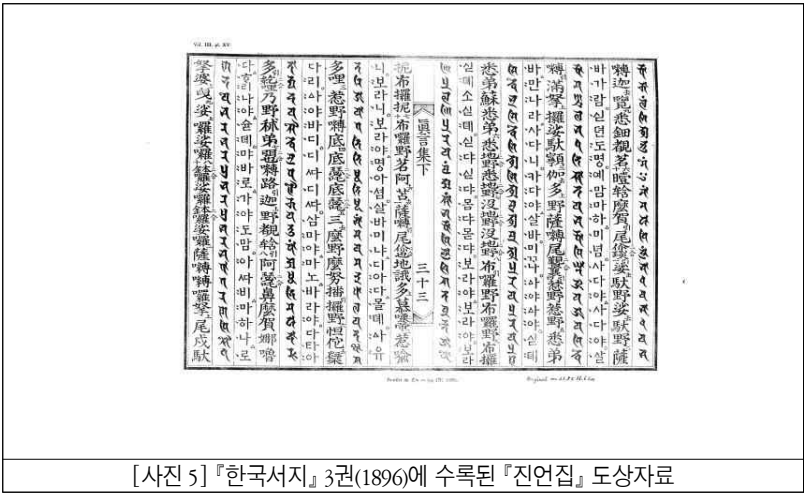
배제하지는 않았다. 즉, 스콧의 ‘훈민정음 기원론’은 헐버트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범자 기원설’의 입장에 보다 근접한 것이었다. 물론 1893년 개정 문법서 「서설」에서 스콧이 전개한 논의는 헐버트의 논의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모습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스콧의 진술과 관련하여 더욱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②이다. 그 역시도 개신교선교사와 같이 당시의 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 “몇 백 년 전에 제작되었으며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한국어가 나란히 세로로 적혀 있는 불교경전 발췌문, 부적, 주문”(②)을 주목했다. 즉,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거론한 사료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 즉, 그들이 결코 참조할 수 없었던 『훈민정음』에 담겨있는 동양의 언어학적 지식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개신교선교사가 한글의 자모표 혹은 『훈민정음』의 「예의편」을 보완할 자료로 『진언집』을 주목하고 활용한 모습과 겹쳐진다. 하지만 스콧은 『진언집』에서 『훈몽자회』의 ‘언문자모’가 재수록된 부분만을 주목하지는 않았다. 그는 『진언집』을 통해 한국문자의 역사와 과거 불교 지식인의 언어학적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스콧이 입수한 『진언집』은 개신교선교사들의 자료보다 월등한 것이었다. 또한 스콧의 이에 대한 활용 역시 개신교선교사보다 한결 더 진전된 것이었다. 이는 문헌서지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한사전 「서설」에서 이 자료가 단편적으로 거론된 이후의 논의들을 보면, 스콧은 1890년경 입수한 이 자료의 간행시기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이다.²⁸⁾ 이와 관련하여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스콧이 이 자료를 모리스 쿠랑과 공유했다는 점이다. 1891년

28) 물론 스콧은 이 판본의 출판시기를 1777년이 아니라 1778년으로 잘못 인식했다. J. Scott, “Introduction,” *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econd Edition),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3, pp. xv ~ xviii; J. Scott, “Stray Notes on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The Chin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28, 1894, p. 224, 229, pp. 230~231; J. Scott, “Sanskrit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pp. 99~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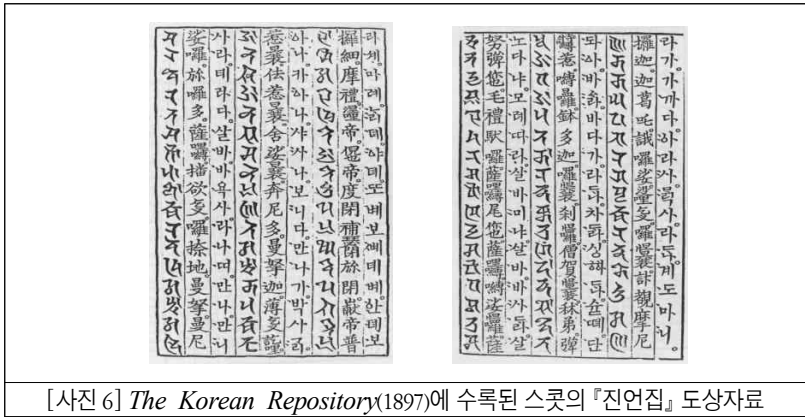
8월 27일 쿠랑이 콜랭드 플라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영한사전의 인쇄작업을 진행하던 스콧이 중요한 한국자료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9월 9일에 보낸 서한을 보면, 쿠랑은 스콧이 소장한 자료를 열람했으며 그 중 한 책자가 “1777년에 나온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조선어로 된 책인데 흥미로운 여러 정보와 함께 잘 새겨진 산스크리트 음절을 모두 담”긴 귀중한 서적이란 사실을 플라랑시에게 알렸다. 후일 쿠랑은 『한국서지』에 『진언집』 4종을 포함했으며, 그 중 『진언집』 1종의 경우 도상자료를 함께 수록했다.²⁹⁾ 스콧이 후일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한 도상자료와 함께 이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⁰⁾



[사진 5] 『한국서지』 3권(1896)에 수록된 『진언집』 도상자료

29) PAAP, *Collin de Plancy* 2, pp. 134-135, 139-140 이 서한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는 이은령·이상현, 「모리스 쿠랑의 서한과 한국학자의 세 가지 초상: 『플랑시 문서철(PAAP, Collin de Plancy)』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를 참조: 쿠랑이 수집한 『진언집』은 모리스 쿠랑, 이희재 역, 앞의 책, 136면, 664면, 846면에 그 서지가 제시되어 있다.

30) J. Scott, "Sanskrit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pp.99~103.



[사진 6] The Korean Repository(1897)에 수록된 스콧의 『진언집』 도상자료

쿠랑과 스콧이 소장했던 『진언집』은 상기의 도상자료가 잘 보여주듯 서로 다른 판본이었다. 쿠랑의 자료에서 진언표기는 ‘범어, 한자, 한글’순인 반면, 스콧의 경우, ‘한글, 한자, 범어’ 순이다. 스콧의 판본이 보여주는 이러한 진언표기 방식은 오늘날 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본 중에서는 안심사본 『진언집』(1569), 보현사본 『진언집』(1688), 만연사본 『진언집』(1777)의 형태이며, 쿠랑의 판본은 망월사본 『진언집』(1800)의 형태이다. 스콧이 『진언집』을 통해 도출한 한글자모표(반절표)를 보면, 한글음과 실제 진언표기의 특징이 이 중에서 만연사본에 의거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두 사람이 입수한 판본은 서로 간 긴밀한 관련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망월사본 『진언집』은 龍巖 體照(1714~1779)와 그의 제자 白巖이 편수하여 1777(정조 1)에 전라도 화순의 萬淵寺에서 開版한 만연사본이 화재로 일실되자, 이를 수정하여 보완한 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귀성으로 본다면, 스콧이 수집한 『진언집』이 보다 귀중한 희귀본이었다.³¹⁾

쿠랑은 『진언집』 전반에 대한 서지를 스콧보다도 한 걸 더 상세하게 제시했다. 만연사본 『진언집』과 거의 일치하는 서지내용(책 제명 및 2권 1책이라는 서지사

31) 안주호, 「만연사본 『진언집』(1777)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118~139면; 본고에서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이자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 공개한 2권 1책의 『重刊眞言集』(1777)을 활용하기로 한다.

항, 刊記, 체재)을 쿠랑의 『한국서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장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이 서지내용은 쿠랑이 자신이 검토했던 스콧이 소장하고 있던 『진언집』의 서지를 기록한 흔적이었을 것이다.³²⁾

쿠랑은 『重刊眞言集序』에 의거하여, 이 책이 白巖과 그의 범어 스승인 龍巖이 『三韻聲彙』(1751)에 의거하여 편찬한 책이며, 이 책의 한글정서법 원칙이 세종과 『훈민정음』의 지침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³³⁾ 쿠랑의 해제는 적절한 것이었다. 스콧이 참조한 『진언집』은 조선시대 『진언집』의 집대성본이었으며, 과거 불교승려이자 한국의 지식인이 범어를 한글로 옮길 때의 지침이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만연사본 『진언집』의 특징은 스콧의 영한사전(1891)과 문법서 개정판(1893)에 수록된 「서설」의 차이점으로 이어졌다. 영한사전의 「서설」에서 거론되는 한국어가 그가 관찰했던 한국인의 언어생활과 음운현상에 그 바탕이 있다면, 문법서 개정판의 「서설」에서는 한국의 지식인이 남긴 옛 문헌자료의 기술에 의거하는 변별점이 보인다. 즉, 스콧의 논의를 당시 유통되던 한글문헌 및 한국인의 음성에 관한 관찰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지 단편적인 지식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의 자취이기도 했다.

2) 만연사본 『진언집』과 한국 불교지식인의 언어학

스콧은 자신의 문법서 개정판에 수록된 「서설」(1893)에서 ‘만연사본 『진언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훈민정음에 관해 논의했다. 「서설」(1893)의 전체 내용을 개관해보면, 먼저 ① “諺本十六字母[『훈몽자회』의 언문자모]”에 의거하여 한글의 초·중·종성을 설명했으며, ② “洪武韻字母之圖”와 “梵本五十字母悉曇章”을 통해 소실문자(△, ㄷ, ㅇ)의 존재와 음가를 추정했으며, ③

32) 쿠랑은 「重刊眞言集序」를 “1777년 白巖의 문하생인 有一에 의한 再刊本の序”라고 소개했다.[M.Courant, 이희재 역, 앞의 책, 13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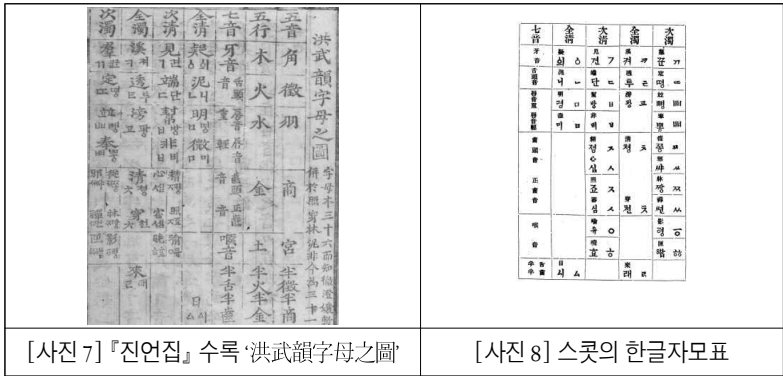
33) 위의 책, 136면.

‘洪武韻字母之圖’[『홍무정운』의 자모]에 의거하여 자음 글자의 배열과 유형을 제시했으며, ④ 실담문자가 한국화된 양상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자모와의 관련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⑤ 외래문자(한자, 산스크리트어)의 유입시기와 고유문자(이두, 한글)의 출현 시기를 초점으로 삼아 한국문자사의 윤곽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스콧 역시 *The Korean Repository*가 번역했던 『진언집』의 “諺本” 즉, 『훈몽자회』의 ‘언문자모’를 먼저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초중성에 쓰이는 자음 8개와 그 명칭, 초성에만 쓰이는 자음 9개, 중성으로 쓰이는 모음 11개만을 선별하여 설명했다. 즉, ‘初中聲合用作字例’와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에 관한 별도의 설명은 생략했다.³⁴⁾ 나아가 그는 개신교선교사와 달리 ‘悉曇章’을 함께 주목하여 실담문자, 한글, 한자가 병치된 이 저술이 지닌 특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활용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스콧 동양학의 근간에는, 來韓이전 1872년부터 중국주재 영국영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잘 말해주듯 중국학적 기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언집』을 통해서 동일한 한자를 매개로 한 중국의 다양한 방언 및 고어, 일본어, 산스크리트어와의 비교연구의 길이 그에게 보인 것이었다. 이렇듯 『진언집』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서설」은 개신교선교사 집단의 ‘훈민정음 기원론’과는 큰 변별점을 보여준다. 첫째, 스콧은 그가 한국에 머물던 시기 통용되지 않던 한글 소실문자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그는 『홍무정운』과 같은 중국음운학의 입장에서 한글의 자음을 유형화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한글자모표’를 구현해낼 수 있었다.

www.kci.go.kr

34) 『중간진언집』, 「언본」, 10장-앞면~11장-뒷면.



상기 도상자료가 잘 보여주듯, 스콧이 제시한 한글자모표[사진 8]는 『진언집』에 수록된 '洪武韻字母之圖'에 그 근간을 두고 있었다.³⁵⁾ 따라서 스콧이 제시한 한글자모표[사진 8]는 과거 서구인이 제시했던 바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즉, 알파벳의 배열순으로 제시된 『韓佛字典』(1880)과 『韓語文典』(1881)에 수록된 한글자모표, 나아가 『訓蒙字會』 '언문자모'의 배열순을 연상시키는 한글자모표를 예컨대, 스콧의 저술, 『한국천주교회사』(1874)의 한글자모표와도 마찬가지로였다. 무엇보다 스콧의 한글자모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글자는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이나 한글문헌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글자모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기획이자 과거 조선 지식인의 중국성운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걸맞게 한글 자모의 음가가 체계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었던 셈이다.

물론 스콧은 '洪武韻字母之圖'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 『주역』, 음양오행설 등과 관련되었기에 서구의 언어학적 용어로는 번역 및 전달이 어려운 '洪武韻字母之圖'의 "五音"과 "五行" 항목의 경우는, 생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스콧은 '洪武韻字母之圖'가 한국어 한자음이 아니라 '漢語/중국어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그의

www.kci.go.kr
35) 위의 책, 9장-앞면.

한계는 실담문자에 관해서도 동일했다. 하지만 서구의 언어학 용어로 번역이 가능했던 ‘七音’과 ‘全淸, 次淸, 全濁, 次濁’의 경우, 본래의 용어를 해석할 수 있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물론, 스콧이 가져온 이 일련의 용어들을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The Hong Mu Chyeng Un(洪武正韻) was entirely transcribed in Énmoun character. The five sounds were analyzed and distinguished as Dental(牙), Lingual(舌), Labial(唇[脣]), and Guttural(喉). / The Labials were again distinguished as light(輕) heavy(重) &c. the Lingual as strait(正), and curved(反) (“turn over” as in pronouncing) : also complete clean(全淸) sounds, semi-clean(次淸) sounds, complete turbid(全濁) sounds, semi-turbid(次濁) sounds, neither clean nor turbid(不清不濁) (neutral) sounds so that not even a woman could fail to comprehend.³⁶⁾

『洪武正韻』에 실린 모든 글자 역시 모두 언문으로 쓰게 되었다. 드디어 五音으로 나누어 구별을 지었으니, 곧 牙音·舌音·脣音·齒音·喉音이었다. 순음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의 다름이 있고, 설음에는 正과 反의 구별이 있으며, 글자 중에서도 역시 全淸·次淸·全濁·次濁·不清不濁 등의 차이가 있어, 비록 무식한 여인이라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가 없었다.[洪武正韻諸字亦皆以諺文書之遂分五音而別之曰牙舌脣齒喉音有 輕重之殊舌音有正反之別字亦有全淸次淸全濁次濁不清不濁之差雖無知婦人無不]³⁷⁾

개신교선교사 집단은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독자적으로는 번역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 기록만으로 스콧이 제시한 ‘한글자모표’를 구현할 수는 없었다. 1890년 이전 스콧의 한국어학서와 언더우드의 문법서를 펼쳐보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³⁸⁾ 비록 그들은 한글 자음자의 개별

36) “Notes on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 1892, p.232.

37) 『燃藜室記述』1, 朝鮮廣文會, 1912, 152면[『燃藜室記述』卷之三, 「世宗朝古事本末(纂述制作)」].

글자에 대응되는 로마자 음가를 대응시킬 수는 있었으며, 全淸, 次淸, 全濁에 대응되는 거센소리와 된소리와 같은 한글의 글자와 발음을 구별할 수는 있었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서구 음운론의 술어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는 있는 셈이었다. 그렇지만 과거 조선의 지식인이 활용했던 '全淸, 次淸, 全濁, 不清不濁'이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한글 글자와 전체 음운의 체계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아가 상기 스콧의 한글자모표가 보여주듯, 당시의 한글문서에서 볼 수 없었던 “ㅎ, ㅇ, ㄷ” 등의 소실문자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³⁹⁾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스콧은 당시 서구인의 한국어학 수준과 자료적 여건으로는 불가능했던 『훈민정음』 「예의편」에서 제시된 자음자의 체계를 만연사본 『진언집』의 '洪武韻字母之圖'를 수용함으로써 서구인에게 소개한 셈이다. 즉, 스콧은 불교 지식인을 통해 문자의 기원과 운용을 스스로 말해주는 위대한 저술인 『훈민정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이며, 이에 한 걸음 더욱 다가선 것이었다. 하지만 『진언집』이 그에게 전해주는 고전세계는 단지 한글자모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제공한 내용은 '諺文字母'와 '悉曇章'에 해당되는 부분 이전에, 배치된 龍巖 회승의 「凡例」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을 것이다.

“...옛날 고승 了義가 비로소 36자모를 찬하였다. 『옥편』과 『자취』와 여러 책이 모두 자모를 본받았고, 음을 반절로 풀었으며, 四聲과 淸濁을

38)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Kelly & Walsh, 1890, pp. 9~22; 『언문말칙(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87, p. 1; J.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p. x xvii.

39) 참고로 스콧은 의당 이 발견이 『진언집』 속 옛 불교지식인의 연구로 인해 가능했었음을 밝혔다. ‘ㄷ’는 日, 仁, 人, 而 등에서 들리는 초성 자음 ‘j’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ㅎ’과 ‘ㅇ’는 일본, 광둥, 상해 및 기타 중국의 일부 방언 등에서 고대 한자음인 두 초성 비음 ‘n’과 ‘ng’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자세히 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洪武正韻』에 이르러 글자의 자모를 31개로 삼았다. 우리 조선에 이르러 자모에 의지하여 언문을 찬술하고, 그것으로 여러 경전을 번역하여 풀이하였다. 高低와 四聲은 점의 多少와 有無로 구분하였으며, 淸濁의 全次는 諺字의 홀소리와 겹소리로 변별하였다[...昔高僧了義始撰三十六字母 而玉篇字彙諸書 皆效字母 音釋反切 四聲淸濁 無不詳盡 至洪武正韻 字母爲三十一母 至於我國朝 依字母 製述諺文 以國語 譯解諸經 高低四聲 以點多少有無分之 淸濁全次 諺字單複邊辨之.]”⁴⁰⁾

이는 조선의 불교지식인이 상상한 문자사이며 인도, 티베트, 중국, 조선으로 이어진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상기의 구절은 한글의 기원과 관련하여, 후일 신채호, 박은식, 이능화 역시 주목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了義는 『성리대전』의 주석(『황극경세서』 8, 40장)에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온 승려’로 36자모표를 만든 인물로 서술된다.⁴¹⁾ 당연히 스콧 역시

이 구절을 그의 「서설」 속에 반영했다. 스콧은 了義를 4세기경 東晉 시대의 인물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그에게 한국에서의 불교문명교류사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⁴²⁾ 이를 바탕으로 그는 한국 悉曇文字의 특징, 또한 이와 한글의 관계에 대해 거론한다. 이 점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왼쪽의 도상자료와 같은 범자, 한글의 대비 표이다.

스콧은 한국에 불교문명이 유입된 시원을 기원 후 4C경으로 상정했다. 『진언집』은 그에게

xi

COREAN MANUAL

as introduced into Corea in the 17th Century A. D.	Sanskrit Characters		as used in the XVth Century A. D.		Modern Chinese Characters		
	as written.	as printed.	as written.	as printed.	as written.	as printed.	
𑖀	𑖁	𑖂	𑖃	𑖄	𑖅	𑖆	k
𑖇	𑖈	𑖉	𑖊	𑖋	𑖌	𑖍	n
𑖎	𑖏	𑖐	𑖑	𑖒	𑖓	𑖔	t
𑖕	𑖖	𑖗	𑖘	𑖙	𑖚	𑖛	l
𑖜	𑖝	𑖞	𑖟	𑖠	𑖡	𑖢	m
𑖣	𑖤	𑖥	𑖦	𑖧	𑖨	𑖩	p
𑖪	𑖫	𑖬	𑖭	𑖮	𑖯	𑖰	s
𑖱	𑖲	𑖳	𑖴	𑖵	𑖶	𑖷	ng
𑖸	𑖹	𑖺	𑖻	𑖼	𑖽	𑖾	ch
𑖿	𑗀	𑗁	𑗂	𑗃	𑗄	𑗅	h
𑗆	𑗇	𑗈	𑗉	𑗊	𑗋	𑗌	j

40) 『중간진언집』, 「凡例(海東 妙門 龍岩 增肅 校對)」, 5장-앞면 : 번역은 이능화 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편찬, 『역주 조선불교통사』 5, 동국대학교, 2010, 436~437면을 참조.

41)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365~366면.

42) J. Scott, "Introduction," *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econd Edition),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3, pp. v~vi.

15C 한국에서 창제당시 훈민정음과 실담문자를 보여주는 자료였다. 스콧의 '훈민정음 기원론'은 전술했던 그의 영한사전 「서설」(1891)과 큰 차이점은 없었다. 굳이 하나의 차이점을 들자면 당시 조선왕조가 조선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해석뿐이다. 이 점을 제외한다면 그 중심논조는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⁴³⁾ 그렇지만 그가 더욱 주목하는 한국에서의 실담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여부였다. 그에게 『진언집』은 훈민정음의 떠나면 시원에 위치한 梵字의 존재를 증언해주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물론 헐버트와 동일한 字形의 유사성에 근거한 기원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콧의 시도는 보다 한국 측 자료에 근거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 특징과 필기체와 인쇄체라는 형태상의 특징을 반영한 대비표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스콧이 한글과 대비하고자 한 梵字는 헐버트와 달리 티베트어 문자가 아니었다. 요컨대, 인도에서 티베트를 거쳐 중국에 건너온 문자이며, 한국에까지 이르고 이후 한국화된 변용이 이루어진 『진언집』의 실담문자였기 때문이다. 스콧은 한국인이 “각형 산스크리트어 문자”(angular shaped lettes of Sanscrit)를 빠르고 쓰기 쉬운 “흘림체 형태”(a short cursive script)로 단축, 수정했으며, 모음 역시 개별 실담문자가 지닌 ‘반체형’의 형태를 감안할 경우 유사성이 일부 발견됨을 지적했다.⁴⁴⁾

하지만 스콧은 자신의 ‘梵字 기원설’을 결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 편으로는 신중함을 보여주었다. 자음자의 경우 梵字에서 한글로 점진적인 변용의 과정이 명확해 보이지만, 모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주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는 자신이 수집한 『진언집』 그리고 다른 불교적 저술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했다.⁴⁵⁾ 그렇지만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거대한 한국-중국 사이에 진행된 문명의 교류사였다. 그는 기원전

43) Ibid., p. x iv.

44) Ibid., pp. x v ~ xvii.

45) Ibid., p. xviii.

1122년 箕子를 통해 들어온 중국문명, 기원후 4C경 불교문명, 설총이 보여준 이두표기, 조선왕조의 훈민정음 창제를 한국 문자사의 중요한 국면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연원을 지닌 한국문명의 존재를 역사비교언어학적 연구로 조명하길 원했다.⁴⁶⁾ 스콧의 소망은 한국에 오랜 시간 체류하며 원산에 근접한 금강산의 고대 사찰, 수도원 등을 방문하며 한글로 된 불교 유적과 다른 문서들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불교사찰에 보관 중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유적, 문학, 역사를 발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2년여의 시간과 공을 들여 수집하게 된 '만연사본 『진언집』'은 梵字와 한글자모의 관계 그리고 그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저술이었다. 또한 동시에 그가 이처럼 탐구하고자 한 오래된 연원을 지닌 한국불교문명의 존재를 증언해주는 저술이기도 했던 셈이다.⁴⁷⁾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의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는 구한말 한국주재 영국외교관 스콧의 영한사전(1891)과 개정문법서(1893)에 수록된 '훈민정음 기원론'과 이를 둘러싼 1890년경 한국개신교선교사의 논의를 함께 고찰했다. 특히, 스콧이 '만연사본 『진언집』'을 통해 한국의 불교문명과 과거 한국불교지식인의 언어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과 그것이 지닌 학술사적 문맥을 제시하고자 했다.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의 헐버트, 이익습, 게일 그리고 스콧 영한사전 「서설」(1891)의 '훈민정음 기원론'은 이두와 한글을 구분하지 못했기에, 설총을 한글의 창제자로 오해한 파리외방전교회와 재외 유럽 동양학

46) Ibid., p. xviii~xx.

47) J. Scott, "Sanskrit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pp. 230~231 ; 이렇듯이 시기 스콧, 모리스 쿠랑 등 구한말 외교관이 한국고전세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염원했던 모습은 이상현, 『『삼국사기』에 새겨진 27년 전 서울의 추억 - 모리스 쿠랑과 한국의 고전세계』, 『국제어문』 59, 국제어문학회, 2013을 참조.

자의 논의를 넘어섰다.

그들이 한글을 세종시대의 역사적 산물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가 주목한 『연려실기술』, 『청야만집』과 같은 야사류 그리고 스콧이 제시한 『국조보감』 등 훈민정음 창제 관련 한국 측 사료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한글자료 중에서 한국사찰의 『진언집』을 주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자료가 범자와 한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헐버트는 '티베트어 문자기원설'을 제기했으며, 이익습은 헐버트의 논의에 대한 반론으로 전승되던 『훈민정음』의 제자해를 바탕으로 '발음기관 상형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헐버트, 이익습의 논의는 *The Korean Repository*가 번역하여 제시해준 관련 자료에 대한 엄밀한 고찰을 전제로 등장한 논의는 아니었다.

이에 비해 스콧은 한글 창제와 관련된 제반 사료 그리고 그가 입수한 '만연사본 『진언집』'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통해, 개신교선교사 집단의 연구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논의를 제출했다. 그의 논의는 적어도 1892년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논의들과는 네 가지 변별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콧은 '만연사본 『진언집』'을 통해 당시 통용되지 않던 소실문자와 그 음가를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훈민정음』 「예의편」에 근접한 한글 자음자의 체계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 셋째, 자신의 중국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인도, 티베트, 중국 그리고 한국을 경유하여 한국화된 '실담문자'의 자형을 탐구했다. 이는 티베트어 문자와 한글을 비교대조한 헐버트의 훈민정음 기원론과는 크게 차별되는 모습이었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 유교[한문], 불교[산스크리트어] 문명의 유입시기 그리고 이두와 한글의 출현을 한국문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설정하며, 한국어·한국문학사를 살필 중요한 윤곽을 구축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훈민정음 기원론, 『훈민정음』, 한글(훈민정음, 언문, 반절), 문화생태, 『眞言集』, 제임스 스콧(James Scott).

<참고문헌>

1. 자료

- 『眞言集』, 『燃藜室記述』, 『東國文獻備考』, 『國朝寶鑑』.
안환,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4, 1915. 2.
황호덕 · 이상현 편역,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2, 박문사, 2012.
황호덕 · 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I, III, 박문사, 2012.
C. Dallet, 안응렬,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上), 분도출판사, 1979[*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 V. Palmé, 1874].
H. B. Hulbert, 김동진 역,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참좋은친구, 2016.
H. U. Underwood,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1, 연세대 출판부, 2005.
M. Courant, 이희재 역, 『한국서지: 수정번역판』, 일조각, 1994[*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1894- 1896, 1901].
PAAP, Collin de Plancy 2.
The Korean Repository I, Seoul: Trilingual Press, 1892.
H.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III, 1892. 6.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Kelly & Walsh, 1890.
J. Scott, 『연문말칙(*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87.
_____, *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Second Edition),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3.
_____,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_____, "Sanskrit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_____, "Stray Notes on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The Chin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28, 1894.

W. G. Aston, "The Önmun-When Invented?,"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3, 1895.

小倉進平,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1940.

2. 논저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2011[2003].

_____,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 경진, 2009.

김민수 외, 『외국인의 한글연구』, 태학사, 1997.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편찬, 『역주 조선불교통사』
5, 동국대학교, 2010.

서민정, 「19C말~20C초, 서양인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우리말연구』
45, 우리말학회, 2016, 16-19면.

안주호, 「만연사본 『진언집』(1777)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
회, 2003.

윤애선, 「개화기 한국어 문법 연구사의 고리 맞추기: *Grammaire Coréenne*(육필본)
분석을 통하여」, 『코기토』 73,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3, 120~130면.

이상현, 「『삼국사기』에 새겨진 27년 전 서울의 추억 — 모리스 쿠랑과 한국의
고전세계」, 『국제어문』 59, 국제어문학회, 2013

이상현, 빈첸자 두르소, 「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李益習, Yi Ik-seup)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열상
고전연구회, 2016.

이은령, 「『한어문전*Grammaire Coréenne*』과 19세기 말문법서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
학논집』 78, 한국프랑스학회, 2012, 433~460면.

이은령 · 이상현, 「모리스 쿠랑의 서한과 한국학자의 세 가지 초상: 『플랑시 문서철(
PAAP, Collin de Planzy)』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에 대하여」, 『열상고전
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75~141면.

이태승, 안주호, 「『비밀개간집(秘密開刊集)』의 체계와 표기에 대한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003.

이태승, 안주호, 『실담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 글익는들, 2004.

이태승, 최성규, 『실담범자 입문』, 정우서적, 2008.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365-366면.

[Abstract]

British Diplomat in Korea, James Scott's Theory of 'the Origi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Manyeonsabon Jineonjip(萬淵寺本 『眞言集』)

Lee, Sang-Hyu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rigi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claimed by James Scott and his theory about the Cultural Ecologies of Korean Language and Classics in 19th century. Especially,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ocess and context that Scott learns about Buddhist civilization in Korea and the linguistic knowledge of Buddhist intellectuals in Korea through '*Manyeonsabon Jineonjip*'(萬淵寺本 『眞言集』). The articles and materials in *The Korean Repository*(1892) reveal the fact that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ary group, too, did share the historical records on the Korean Alphabet and *Hangeul*(한글) materials from Buddhist temples.

Scott, however, conducted precise research on '*Manyeonsabon Jineonjip*' and gained differentiated result from that of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aries. First, he did infer the lost letters of *Hunminjeongum*(『訓民正音』) and their phonetic value which were not commonly used then. Second, he realized the system chart about Hangeul consonants close to the *Yeui Part*(例義篇) of *Hunminjeongum*. Third, he examined the word forms of Korean Siddhamatika(悉曇文字) to see how they are related with *Hangeul*. Lastly, he was able to conceive a structure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letters.

【Key words】 : The theory of origi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Hunmin-jeongeum(訓民正音), the Korean Alphabet,
Cultural Ecology, *Jineonjip*(『眞言集』), James Scott.

이상현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조교수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공동연
구소동 719-8

전자우편: dctrue1975@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2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